性 담론의 수용과 周作人의 審美觀

高 韻 璇*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인간과 봉건 도덕규범의 위치
3. 靈肉一致에 대한 理想
4. 문학세계와 현실사회
5. 節制와 藝
6. 마치며

1. 들어가는 말

5·4 신문화 운동의 의의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인간의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5·4시기 지식인들의 "인간"에 대한 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周作人 역시 여성문제에 대한 글을 많이 남겼다. 일차적으로 드러나는 여성 옹호적 시각 때문에 대체로 5·4 시기의 反봉건에 일조를 했다고 평가되지만, '부녀문제는 단지 여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全인류적 문제'(「婦女問題與東方文明等」)[1]라고 한 바 있듯이, 周作人의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은, 그의 '人'에 대한 시각과 문학 활동 전반에 바탕이 되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접근 방식 역시 윤리 문제나 사회 제도적 차원에 한정되지 않고, 性 심리학에서부터 性교육, 남녀간의 연애와 결혼, 이혼 등과 같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생물학적 인간에 바탕을

* 高麗大 中文科 講師

1) 「婦女問題與東方文明等」(1928.6.26.), 鍾叔河 編, 『周作人文類編⑤ 上下身-性學, 兒童, 婦女』, 湖南文藝出版社, 343쪽.

두고 작성된 「人的文學」 역시 性 담론 및 여성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周作人의 여성문제에 대한 시각과 性 담론 수용 양상 및 문학과의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周作人은 엘리스(H. Ellis), 블레이크(W. Blake), 카펜터(E. Carpenter), 스톱스(M. Stopes), 요사노 아키코(與謝野晶子) 등으로부터 性 담론을 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과감한 性 담론은 당시 사회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지금도 논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논의의 시비를 가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의 性을 통해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무엇을 주장하고자 했는가를 파악하는데 있다. 周作人 역시 자신의 문제의식과 논리의 필요에 따라 性 담론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먼저 여성문제와 관련된 周作人의 활동을 통해, 그가 당시 중국의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性 담론과 생물학적 '人'과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인간에 대한 접근 방식을 통해 삶의 조건과 문학의 상관성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자 했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인간과 봉건 도덕규범의 위치

周作人은 『女子世界』라는 잡지에 「說死生」, 「俠女奴」[2] 등을 기고하면서부터 문단활동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할 수 있는데, 주로 吳萍雲 또는 萍云女士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애초부터 여성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1904년에 발표된 「論不宜以花字爲女子之代名詞」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여자를 꽃이라는 글자로 표현함으로써, 여자는 평생토록 규방에 갇혀 오직 남자를 위해 단장하며 지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20세기의 여자는 외적 아름다움보다는 심지

2) 周作人이 번역한 첫 번째 외국문학 작품으로, 『千一夜話』 중 「아리바바와 40인의 도적」(1904.8-12期)을 번역한 것이다. 「說死生」은 그보다 앞선 1904년 『女子世界』5期에 실린 글이다. (張菊香·張鐵榮 編著, 『周作人年譜(1885-1967)』, 天津人民出版社, 2000, 56-57쪽).

www.kci.go.kr

의 나약함을 걱정하며 호방한 정신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함을 당부하고 있다.[3] 1907년에는 北京督學局에서 학내 법률로서 稗官소설을 금지한다는 공고를 보고, 소설과 희곡이 음란과 도적질을 가르친다는 오래된 편견의 터무니없음을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인 食과 色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여자를 남자의 개인 소유물로 생각하고 蓄妾이 난무하게 되자 色을 곧 淫과 연결짓게 되었다고 하면서, 연애와 결혼 및 이혼 문제는 서구에서도 종교적 제약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4] 비록 『禮記』의 "먹을 것과 이성을 갈구하는 것에 인간의 큰 욕망이 있다(飮食男女, 人之大欲存焉)"라는 말을 인용하였지만, 글의 저변에는 性 담론의 논리가 다소 흐르고 있다. 周作人은 이미 紹興에서 일본인의 글을 통해 블레이크의 논의를 접하고 있었고,[5] 때마침 1906년 9월-1911년 9월 사이에는 일본에서 유학하며, 다양하고 폭넓은 서구의 사상 및 문학과 서구의 사상과 문학을 이미 체계적으로 소화시키고 있던 일본 문단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周作人이 유학하던 당시 일본 문단에서는, 러일전쟁의 승리로 인해 과도한 자신감과 이에 대한 회의와 환멸의 시각이 공존하면서, 시라카바(白樺)파를 중심으로 아이덴티티에 대해 고민하는 작가들이 한 부류를 이루고 있었고,[6] 메이지(明治) 시대부터 번역 소개한 진화론・우생학・인구론・산아제한・여성해방・여권운동을 본국의 문제의식과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와 같은 일본인들의 논의는, 서양 사상을 동양 세계의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로 개조했기 때문에, 근대 초기 중국 문화를 진단하고 처방함에 있어 서구의 논의를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7] 이런 점을 무의식중에 감지했는지는 몰라도, 1918년 주작인은 『新青年』(4권5호)을 통해 일본의 요사노 아키코(與謝野晶子)[8]의 「情操論」을

3) 「論不宜以花字爲女子之代名詞」(1904.5.『女子世界』5期), 『周作人文類編⑤ 上下身-性學, 兒童, 婦女』, 271-272쪽.
4) 「防淫奇策」(1907.11.『天義報』11,12期), 『周作人文類編⑤ 上下身-性學, 兒童, 婦女』, 4-5쪽.
5) 小川利康, 「五四時期の周作人の文學觀」, 『日本中國學會報』제42집, 1990. 10, 224쪽.
6) 吳紅華, 「周作人のエロティズム」, 『中國文學論集』第28號, 1999, 136-137쪽.
7) 張競 지음, 임수빈 옮김, 『근대 중국과 연애의 발견』, 소나무, 2007, 177쪽.
8) 1878-1942. 일본의 시인으로 본명은 호쇼(鳳晶), 1900년 요사노 뎃칸(與謝野鐵幹)이 중심이 된 신시샤(新詩社)에 가입하여 동인지 「묘조(明星)」의 발간을 도왔다. 1901년에 나온 시집 『헝클어진 머리(みだれ髪)』로 스타가 되었다. 1914년에는 11C 일본의 고전인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의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를 현대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다. (한국 브리태니커회사,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권16, 1993, 470쪽)

번역 소개하였다. 아키코의 이 평론은 사실 일본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지만, 당시 중국의 지식인과 청년 학생 사이에서는 당시 번역된 어떤 글보다 뜻밖의 영향력을 발휘했었다.[9] 주된 논의는, 기존의 정조 관념이 어떤 확고한 기준점도 없이 여자에게만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윤리적 사회적으로 억압되어온 현실을 비판하고, "정조"라는 말보다 사랑과 결혼에 있어 남녀간의 동등한 조건과 시각이 우선되어야 함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周作人은, 중국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소위 道學者들이 말하는 禮法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변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한 바 있는데,[10] 공감으로 인해 아키코의 글을 번역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우리가 바라는 것은, 모든 허위와 압제, 부정, 불행에서 벗어나 가장 진실하고, 자유롭고, 분명한, 그리고 행복한 생활을 실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古代의 도덕은 당시 인류의 생활에 있어서는 이로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우리의 본성(情意)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우리의 생활 규율과 맞지 않는 것이다. 만약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억지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허위로써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니,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포학한 도덕을 배척하고, 다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도덕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옳을 것이다.[11]

요컨대 예법이나 규범의 형태로 존재하는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활을 조절하고 돕기 위한 보조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또 불필요해지거나 오히려 생활에 해가 되게 되면, 폐기하거나 고쳐져야 했다. 마치 이러한 그의 생각에 화답이라도 하듯, 胡適은 『新青年』 5권 1호에 「貞操問題」을 발표하면서, "정조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일이다.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일이 아니라 쌍방

9) 張競 지음, 임수빈 옮김, 『근대 중국과 연애의 발견』, 소나무, 2007, 176쪽.
10) 「婦學商兌」(1914.12.『紹興教育雜誌』2期), 『周作人文類編⑤ 上下身-性學, 兒童, 婦女』, p.286.
11) 我們的希望, 在脫去所有虛僞, 所有壓制, 所有不正, 所有不幸, 實現出最眞實, 最自由, 最正確而且最幸福的生活. 我們就將這實感作基礎, 想來調整一切的問題. 譬如古代道德, 在當時人類的生活上, 雖然有益, 如今已不能滿足我們的情意時, 便已同我們生活的規律不合. 倘若仍然拿來强用, 便是用虛僞來施壓制, 我們應當排斥這暴虐的道德, 再去努力制定我們所必要的新道德, 才是. (「貞操論」(1918.5.『新青年』4卷5號), 『周作人文類編⑤ 上下身-性學, 兒童, 婦女』, 424쪽).

www.kci.go.kr

의 일이다. 여자가 남자를 존중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그 남자만을 사랑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을 정조라고 한다. 정조는 한 '인간'의 다른 '인간'에 대한 일종의 태도이다. 그러므로 남자도 여자를 동등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만약 남자가 해오던 대로 공손할 수 없다면, 그는 이러한 절개있는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12]라고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중국의 여성문제에 일찍부터 관심을 보인 『新青年』은, 창간호부터 시작해서 胡適이 「易卜生主義」(4권 6호)로 많은 호응을 이끌기까지, 남존여비, 蓄妾 풍속, 정절과 효의 名敎, 교육, 결혼, 직업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女權 신장의 필요성을 호소해 오고 있었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9년 무렵 신문에서는 여전히 節婦와 貞女의 사적을 기리는 기사와 시문이 실리며 『新青年』 사단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문화적 환경에서, 구식 용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藍志先이란 사람이 胡適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周作人이 번역한 「貞操論」에 대해 언급한 글을 보고, 周作人이 다시 그 다음해 『新青年』(6권 4호)에 「答藍志先書」을 발표했으니 말이다.[14] 글의 요지는 藍志先이 말하는 정조라는 것이, 순결(Chastity)인지, 아니면 신실(Fedelity)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Abstinence인지 따져 묻는 것이었는데, 결국 胡適나 자신이 주장하는 정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봉건 윤리 관념의 옹호자를 논리적으로 비판했던 것이었다.[15] 이때 Abstinence은 중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하고 있는데, 아마 당시 공명하고 있던 블레이크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서양의 종교적 禁欲과 중국의 봉건 도덕의 불합리함의 억압적 성격을 똑같이 보고자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16] 『新青年』에서 벌어진 이러한 토론을 통해, 여성을 봉건도덕과 남성들의 횡포에서 해방시키고 남여평등을 이루어, 여성에게도 교육의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 당시 5·4 지식인들이

12) 舒蕪, 『周作人的是非功過』, 遼寧教育出版社, 145-146쪽. 재인용.
13) 舒蕪, 『周作人的是非功過』, 遼寧教育出版社, 144-145쪽.
14) 藍志先의 본명은 藍公武라고 하는데, 당시 東京帝國大學을 졸업하고 초대 국회의 하원으로 당선된 적도 있는 엘리트로서, 정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널리스트였다고 한다. "정조문제"를 둘러싼 자세한 전개와 의의는 張競 지음, 임수빈 옮김, 『근대 중국과 연애의 발견』 제4장 동쪽에서 온 '서양', 소나무, 2007, 142-178쪽을 참고하시오.
15) 「答藍志先書」(1919.2.『新青年』6卷4號), 『周作人文類編⑤ 上下身-性學, 兒童, 婦女』, 431쪽.
16) 小川利康, 〈周作人とH·エリス〉, 『早大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別冊15集, 1989, 2.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7]

여기에서 周作人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봉건 도덕규범의 문제점은, 물론 억압하는 남성과 억압받는 여성이라는 구도를 만들기도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생활을 보조하는 조절제의 역할을 해야 하는 도덕이, 위치가 전도되어 남여를 떠나 인간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는데 있다고 본 것이다. 위 인용문을 다시 읽어보면, 만약 인간과 도덕규범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둔다고 할 때, 도덕적 규범보다는 인간이 먼저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인간이 도덕규범을 지키기 위해 생존하는 상태가 되면, 인간은 영원히 도덕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을 소외시켜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을 인간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남성 스스로도 다른 사람과 단절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1923년 3월-6월 사이 『晨報副鐫』에서 "애정문제"를 두고 지면상 논쟁이 벌어졌는데, 周作人은 발표된 글들을 보고 남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비열하다며 비판했다. 중국의 사회조직은 원래 서양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여자를 존중할 책임 같은 것은 없다며, 부인에게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하는 구식 남성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가 하면,[18] 남녀 간의 아주 사적인 일인 이혼을 자기네들 선에서 끝내지 않고, 예교를 들먹이며 남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남자들의 글을 보고, 부디 청년들은 부부간의 일을 혁명 같은 거창한 일처럼 비유하지 말기를 호소한 바 있다.[19] 아울러 메리 스톱스(Marie Stopes)[20]의 「結婚的愛(Married Love)」[21]와 아키코의 「愛

17) 서구의 중국학 연구자 디쾨터(Frank Dikötter)는 『성·문화·모더니티: 근대 중국의 의학과 섹슈얼 아이덴티티의 구조(Sex, Culture, and Modernity in China: Medical Science and the Construction of Sexual Identities in the Early Republican Period)』를 통해, 당시 중국의 性 담론 범람 현상을 辛亥革命에 의한 정치 구조의 격변에 이어, 유교로 지탱된 性의 질서에 도전한 하나의 인식론상의 혁명으로 해석한다. (사카모토 히로코 지음, 양일모·조경란 옮김, 『중국 민족주의의 신화』, 지식의 풍경, 2004, 118쪽에서 재인용.)
18) 「關於誰是犧牲的問題」(1923.3.29.『晨報副鐫』), 『周作人文類編⑤ 上下身-性學, 兒童, 婦女』, 442-443쪽.
19) 「離婚與結婚」(1923.4.25.『晨報副鐫』), 『周作人文類編⑤ 上下身-性學, 兒童, 婦女』, 446쪽.
20) 1880-1958. 여성이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하도록, 임신과 출산에서 오는 과도한 신체적 스트레스로부터 여성을 구하기 위해 산아제한 운동을 전개한 영국의 운동가로서, 인구과잉과 가난을 없애는데 주로 관심을 두었던 다른 산아제한 운동의 초기 지도자들과 차별성을 띤다. 『결혼 후의 사랑(Married Love)』(1918), 『현명한 부모가 되는 길(Wise Parenthood)』

www.kci.go.kr

的創作」[22]을 소개하면서, 남녀가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사랑의 과정과 결혼생활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그 자체가 바로 일종의 예술의 과정과 같다고 했다. 스톱스의 논의를 받아들여, 기존의 남자 본위적 애정관·결혼관에 대한 비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여성 본위의 兩性 관계의 입장에 서 있는, 남성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은, 周作人이 파악한 당시 중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근본문제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이었다는 점으로 귀결된다.

> 요컨대, 인습적인 舊藝教의 용인 하에,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편안함을 꾀하고, 한편으로는 각종 수단을 써서 암암리에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비열한 사람이다. 용기 있는 남자라면 아예 결연히 일어서서 전통과 싸워야 한다. 이렇게 살랑살랑 몸을 꼬는 행위는 정말이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토를 느끼게 한다.[23]

봉건적 도덕이 인간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의 폐해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중국은 대대로 禮를 존중해 오던 사회였는데, 이른바 그 禮라는 것이 이미 공허하게 되어버려, 사실 인간 대 인간의 교류에서 예절이라는 것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때 주작인은 문제를 굳이 여성과 남성이라는 틀에 국한 시키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을 하나의 대등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남성들은 아집에만 둘러싸이게 되고, 여성은 사람대접을 받지 못함으로써 아예 발언권 자체를 박탈당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이에서 진정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3. 靈肉一致에 대한 理想

(1918), 『피임의 이론, 역사 그리고 실제(Contraception: Its Theory, History and Practice)』(1923)가 유명하다. (한국 브리태니커회사,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권13, 1993, 164-165쪽)

21) 「結婚的愛」(1923.4.18.『晨報副鐫』), 『周作人文類編⑤ 上下身-性學, 兒童, 婦女』, 19-21쪽.

22) 「愛的創作」(1923.7.15.『晨報副鐫』), 『周作人文類編⑤ 上下身-性學, 兒童, 婦女』, 22-25쪽.

23) 「卑劣的男子」(1924.2.15.『晨報副鐫』), 『周作人文類編⑤ 上下身-性學, 兒童, 婦女』, 452쪽.

주작인의 性 담론 수용 양상은 일본 작가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물론 일본이라는 경로를 거쳐 접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어뿐 아니라 영어에도 능통했던 그는 직접적인 영문서적의 독파를 통해 민속학·신화학·생물학·영문학 등 다방면의 지식과 자료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의 문장에 인용되거나 직접 번역 소개되었던 블레이크, 엘리스, 카펜터 같은 인물들의 활동은, 문학이나 사회 운동이라는 어떤 특정적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미술·의학·사회운동·철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周作人의 전반적인 심미관이나 세계관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볼 수 있다.

「貞操論」을 번역하던 그 해, 周作人은 「愛的成年」에서 카펜터(Edward Carpenter)[24]의 『愛的成年』(Love's Coming-of-Age)을 소개하는 글을 발표했다. 인간의 육체와 모든 본능적 욕구를 인정하고, 육체를 불결하게 생각하는 것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인간의 생활에서 자유와 아름다움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카펜터의 견해를 소개하는 동시에, '힘(Energy)은 유일한 생명으로 육체에서 비롯된다. 이성은 힘을 둘러싸고 있다. 힘은 영원한 열락'이라고 하는 블레이크(William Blake)의 시를 덧붙임으로써 무언의 동의를 표했다.[25] 인간의 육체가 곧 인간의 타락을 대변하는 것처럼 인식되어온 역사적 유래를 소개하고, 육체와 욕구의 긍정이라는 과감한 혁신에서부터 나아가 육체에서 비롯되는 에너지를 삶을 살아가는 동력으로 이해한 관점에 크게 공명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연말, 周作人은 『新青年』 5권6호에 「人的文學」을 발표했다. 「人的文學」에

24) 1844년-1929년, 영국의 시인이자 사상가로, 1870년대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관습에 반대했고, 정치적 혁명보다 스스로 농경에 종사하며 전원적 삶으로 복귀하는데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다. 해이블럭 엘리스의 영향을 받아 예술과 삶의 관계를 다룬 『창조의 예술(The Art of Creation)』(1904), 『천사의 날개(Angel's Wings)』(1898)를 썼으며, 남녀 관계를 다룬 『사랑의 성년』(1896), 『중간의 성(The intermediate Sex)』(1908) 등은 수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한국 브리태니커회사,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권21, 1993, 238쪽).

25) '『愛的成年』第一章論性欲, 極多精義. 他先肯定人生, 承認人類的身體和一切本能欲求, 無一不美善潔淨(155쪽), '勃來克承認'力(Energy)是唯一的生命, 從肉體出; 理(Reason)便是力的外界. 力是永久的悅樂.'(156쪽), 「愛的成年」, 『談龍集』.

www.kci.go.kr

서 나타나는 '人'에 대한 시각은, '동물에서 진화한 인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을 생물의 일종으로 파악함으로써 인간의 생존본능 및 욕망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생명체 일반으로서의 인간이었다. 한편 이러한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달리 그 내면에는 보다 복잡하며 생활을 개조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접해온 진화론, 생물학, 性 심리학의 수용 양상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목이다.[26] 이에 周作人은 생존본능과 욕구를 가진 인간에게 性이 중심적 문제가 된다고 파악하고, 이 두 측면을 대항적인 이원논리가 아니라 한 사물의 양면으로 풀어내어 靈肉一致를 주장한 블레이크의 견해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인용하였다.

> (1)인간에게 영혼과 분리된 육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육체라는 것은 본래 오관으로 느낄 수 있는 영혼의 한 부분이다.
> (2)힘은 유일한 생명이며 육체로부터 발생한다. 이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 힘의 외면적 세계이다.
> (3)힘은 영원한 즐거움이다.[27]

위 인용문은 블레이크의 시『천국과 지옥의 결혼』중「Plate4. 악마의 말(The Voice of the Devil)」의 일부분으로서,「愛的成年」을 통해 소개한 구절과도 일치한다. 블레이크와 카펜터의 육체와 욕구에 대한 편견을 떨쳐버리는 견해는, 결국 이전과 다른 "자유롭고 아름다운 공공 생활을 건설"하기 위해, 자유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생활을 만들어가기 위해 먼저 갖춰야 할 조건 같은 것이었다.[28] 이와 같은 논리의 영향은 "肉은 獸性에서 전해진 것이고 靈은 神性의 발로인데, 인생의 목적은 결국 이 神性을 발전시키는데 편중되어 있다"라고 한「人的文學」에서 거의 유사한 형태로 드러난다. 다음해 발표한「平民的文學」에서 자신이 말하는 평민의 문학이란, 전체 인간의 생활이 어떻게 하면 정당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

26) 劉全福,『翻譯家周作人論』,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7, 144쪽.
27) "(一)人并無與靈魂分離的身體. 因這所謂身體者, 原止是五官所能見的一部分的靈魂. (二)力是唯一的生命, 是從身體發生的. 理就是力的外面的界. (三)力是永久的悅樂." 「人的文學」(1918.12.『新青年』5卷 6號),『周作人文類編③ 本色-文學, 文章, 文化』, 33쪽.
28) "他(Carpenter: 필자 補注)說明: '關于人身那種不潔的思想, 如不去掉, 難望世間有自由優美的公共生活.'", (155쪽), "他(Blake)的希望, 是在將來社會上, 成立一種新理想新生活, 能夠以自由與誠實爲本, 改良兩性的關係." (156쪽),「愛的成年」,『談龍集』。

민하는 문학이라며 역시 같은 생각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29] 그렇다면 靈肉의 인간은 어떤 식으로 자신의 삶을 자유롭고 충만한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것인가? 1920년부터 1922년 사이 周作人이 발표한 글들을 보면, 이상적인 '인간'의 생활에 대해 논하면서 '인류'로부터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관점이 공통적으로 눈에 띈다. 문학의 의의에 관해서 의론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문예의 기원으로부터 문학의 본질을 논하자면 작가의 표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新文學的要求」),[30] 남들이 자신의 문학을 개인주의적 문예라고 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문예야말로 자기가 말하는 진정한 인류적 문예(「文藝的討論」)[31]라고 했다. 이러한 그의 개인관은 문학과 사회를 따로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오해를 받을 여지는 다소 있다. 그러나「人的文學」에서부터 견지해온 이러한 견해의 이면에는 周作人 나름의 전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류로부터 독립된 개인이라고 했지만, 이 개인은 靈肉을 동시에 안고서 인간으로서의 내적 의지에 의해 개인과 사회의 모순적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인간으로서, 이를 통해 나름의 그가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는 이후의 글을 통해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4. 문학세계와 현실사회

周作人의 性 담론에 관한 논의는 주로 1923-1927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32] 물론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전부터 性에 관한 글은 발표되고 있었지만,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종전의 2편 남짓에서 평균 5편 정도로 그 분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된다. 한편, 1919년 5월 5·4운동이 발발하면서부터는 시사적 사건과 사회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며 日本的新村 ,「訪日本新村記 , 新村的精神 과 같은 일본의 '新

29)「平民的文學」(1919.1.『每周評論』5期),『周作人文類編③本色-文學, 文章, 文化』, 43쪽.
30)「新文學的要求」(1920.1.8.『晨報』),『周作人文類編③本色-文學, 文章, 文化』. 47쪽.
31)「文藝的討論」(1922.1.20.『晨報副鐫』),『周作人文類編③本色-文學, 文章, 文化』, 66쪽.
32) 吳紅華,「周作人のエロティズム」,『中國文學論集』第28號, 1999, 143쪽.

www.kci.go.kr

村'운동을 소개하는 글을 활발히 발표하였다. 다음해 1920년에는 자신의 거처를 新村의 北京 지부로 선포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정도였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周作人이 「愛的成年 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의 性 담론이 산아제한 방면에 대한 흥미와 결합하여, 민족의 생식과 사회의 역할(a social function) 간의 관계 및 시라카바(白樺)파의 '新村'운동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고, 일종의 우생학과 사회주의의 결합이라는 착상을 낳게 된 시기라고 보기도 한다.[33] 당시의 진화론·인류학·생물학·性 담론 등이 19C 서구 세계를 휩쓸었던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견해이지만, 주작인의 性에 대한 관심은 중국 사회의 본질을 파악하는 키워드가 되고, 문학 평론이나 스스로의 문학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19년에 발표된 「勃來克的詩 에서는, 블레이크의 시와 사상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문학관에 있어 핵심이 되는 '상상력'이란 것을 자기화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34]에서 더욱 그러하다. 1922년 이후로는 「沈淪」, 「女子與文學」, 情詩 , 「什麽是不道德的文學」과 같은 글을 통해, 性 담론 및 여성문제를 문학과 함께 사고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郁達夫의 소설을 변호하는 성격을 띠는 沈淪」에서는, 항간에서 말하는 소위 부도덕한 문학을 판단하는 기준의 편협성을 지적하며 문학에서의 외설적인 요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 이러한 본능이 상당히 발전하고 상당한 만족을 얻게 되면 행복한 일상적인 性적 생활의 기초가 마련되며, 나아가 승화하면 예술과 학문의 근본을 이루게 된다. 만약 억압받아 누적된 것을 분출하지 못하면 병적인 성욕, 즉 소위 色情狂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한다. 현대문명의 기저에는 좋건 나쁘건 이것이 억눌려 있기를 바라고, 예술적인 표현에서도 色情은 본래 억눌려 있기 때문에, 항상 만족스러운 기회를 얻기 어렵다. 그러므로 무의식적으로 분출하게 된다.[35]

33) 사카모토 히로코 지음, 양일모·조경란 옮김, 『중국 민족주의의 신화』, 지식의 풍경, 2004, 150-151쪽.

34) 오가와는 周作人이 블레이크의 시를 소개하면서, 개체의 혼과 우주혼과의 합일에 의한 아집으로부터의 해탈(忘我)에 관심을 두면서, 이를 통해 '상상력'이란 말을 자기화하게 되었다고 한다.(小川利康, 「五四時期の周作人の文學觀」, 『日本中國學會報』제42집, 1990. 10, 231쪽).

35) 這些本能得到相當的發達與滿足, 便造成平常的幸福的性的生活之基礎, 又因了昇華作用而成爲藝術與學問的根本; 倘若因迫壓而致蘊積不發, 便會變成病的性欲, 卽所謂色情狂了. 這色情在藝術上的表現, 本來也是由于迫壓, 因爲這些要求在現代文明-或好或壞-底下, 常難得十分滿足的機會, 所以非意識的噴發出來. 「沈淪」(1922.3.26.『晨報副鐫』), 『自己的園地』, 59쪽.

周作人은 「沈淪」의 性的인 욕구를 묘사한 부분에서, 현대인의 고민 즉, 生에의 의지와 현실 사이에서의 충돌이라는 일반화시킨 메시지를 추출해 내고, 소위 色情이라는 것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경우라고 평가하고 있다. 뒤이어 性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문학을 분류하면서, 자연파의 소설과 퇴폐파의 저작을 예로 들어, 일종의 정신분석학적 무의식과 문학의 연관성을 피력하였는데, 본능의 승화가 예술과 문학의 근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문학의 한 특징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같은 해 발표한 汪靜之의 연애시 『蕙的風』를 평가한 「情詩」에서도, 연애라는 것은 곧 결합을 원한다는 뜻이고 이는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인연으로 인해 혼자일 때와 달리 하나의 새로운 생명력을 양성해 낸다며, 문학에서의 性愛와 애정 표현을 적극 지지했다.[36] 그런데 汪靜之의 시 역시 부도덕하다고 혹평을 받은 모양이었다. 이에 주작인은 郁達夫의 글에 이어 봉건도덕을 운운하는 글을 싣는 『學燈』지의 한심함을 지적하고, 『舊約』중의 한편인 『雅歌(Song of songs)』에서 남여 간의 관능적인 사랑을 표현한 구절을 예로 들면서, 性에 대한 작품상의 표현의 자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37] 1923년에 발표한 「猥褻論」(2월)에서의 엘리스(Havelock Ellis)[38]의 인용은, 이러한 그의 시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준다. 즉 외설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 역시 가변적임을 볼 때, 불결하다고 느끼는 것은 바라보는 측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39] 예술을 욕구의 승화로 이해하는 견해는 같은 해 6월에 발표된

36) 「情詩」(1922.10.12.『晨報副鐫』), 『自己的園地』, 51쪽.

37) 「什麽是不道德的文學」(1922.11.1.『晨報副鐫』), 『周作人文類編③本色-文學, 文章, 文化』, 730-731쪽.

38) 1859-1939. 영국의 의사 출신 문명 비평가. 『Man and Woman』(1894)를 쓰기 위해 인간의 性행위를 연구한 끝에 대표작 『Studies in the psychology of sex』(7권, 1897-1920)를 내놓았는데, 제1권이 출판되자 소송을 당했다. 판사는 이 책의 가치는 오직 '음란 서적을 팔아먹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나머지 6권은 미국에서 출판되었으며, 1935년까지 의료인들만이 합법적으로 이 책을 구할 수 있었다. 그의 저서는 性 문제의 공개적 논의를 촉진시켰으며, 女權 변호자, 性교육 옹호자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구자현·황상익, 「엘리스(Havelock Ellis)의 성 심리학 연구」, 『醫史學』제5권 제1호(통권 제8호), 1996, 21쪽 참고).

39) 「猥褻論」(1923.2.1.『晨報副鐫』), 『自己的園地』, 84쪽.

www.kci.go.kr

「文藝與道德」에서 인용한 엘리스의 글이 띠는 유사한 논리를 통해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다.

> 이는 오래 관찰한 결과인데, 가장 불결한 시는 가장 순결한 시인이 쓴 것이고, 가장 순결하게 글을 쓰는 사람은 반대로 가장 불결하게 살아간다. 바로 기독교도들이 이러한데, 신구 종파를 막론하고 가장 방종적인 문학들은 모두 사제가 쓴 것이다. 이는 결코 사제가 타락한 계층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이 엄숙하고 정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적 조율이 더욱 필요했기 때문일 뿐이다.40)

그러나 사회적 시각으로는 충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자유로운 행위가 용납될 여지가 없었다. 충동의 억압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정을 보다 고상하고 안정된 무엇으로 옮겨야 했다. '보다 고상하고 안정된 무엇'이 바로 문학이자 예술이었다. 한편, 이러한 욕구가 급속하게 행동으로 변하게 되면, 마음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오직 사회적 윤리규범과 부딪히게 되므로 '節制'라는 것이 필요하였다. 모순되는 말처럼 보이기 쉽지만, 周作人이 문학을 욕구의 승화로 받아들인 것의 이면에는, 욕구가 어떤 과정을 통해 문학으로 승화되는가 하는 논리상의 문제보다 이를 통해 문학적 세계와 현실 사회를 다른 차원에 두고자 한 의도가 있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로맨틱(Romantiq) 문학에 등장하는 환상적 요소와 다소 황당한 동화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서 잘 드러난다.

周作人은 사기를 목적으로 사실 그대로 진술하지 않는 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순전히 문학적 차원에서 하는 황당무계한 말은 잘잘못을 가릴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름답지만 실제로는 없는 일을 쓴다는 것이 예술에서는 중요하며, 문학 작품을 통해 응축된 인간의 상상력을 감상한다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신비로운 정신을 양성해 주는데, 인간에게 있어 신비로움이야말로 곧 神聖이었기 때문이었다.41) 또, 뱀파이어나 늑대인간과 같은

40) 這是一個很古的觀察, 那最不貞潔的詩是最貞潔的詩人所寫, 那些寫得最淸淨的人却生活得最不淸淨. 在基督教徒中也正是一樣, 無論新舊宗派, 許多最放縱的文學都是教士所作, 并不因爲教士是一種墮落的階級, 實在只因他們生活的嚴正更需這種感情的操練罷了. (「文藝與道德」(1923.6.1.『晨報副鐫』), 『自己的園地』, 89쪽).

41) 「鏡花緣」(1923.3.31.『晨報副鐫』), 『自己的園地』, 113-114쪽.

괴담은 실제적인 문화발전의 측면에서는 미신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전설 속 이야기를 통해 인류의 공통된 비애와 공포심을 느끼고 이를 통해 인간은 공통된 삶의 조건 속에 상호 연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었다.42)

周作人에게 상상의 산물인 문학은 사회의 도덕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었다. 그러기에 사용하는 용어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말은 제한될 수 있지만, 창작상의 저속한 용어의 사용은 오히려 작품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만약 소심한 태도로 일반적인 화제와 언어력을 가지고 문학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문학적 성과는 원하는 만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 뻔하다는 말이다. 환상적 이야기의 무한한 자유 논리가 문학 입문자(The Initiated)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말에서, 문학 세계와 현실 세계는 다른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周作人은 만년의 저서 『知堂回想錄』에서, 이 시기의 자신은 주로 낭만주의 문예 사상에 기대어 문학 활동을 했었다고 밝히고 있는데,43) 새로운 세상을 꿈꾼 낭만주의자들의 영향이 性 심리학에서 받은 영향과 뒤섞여, 차츰 스스로의 문학논리를 세우는 방향으로 모여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節制와 禮

주작인의 性 담론에 있어 누구보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엘리스이다.44) 周作人은 1930년에 自述을 작성하면서 엘리스에 감복한 이유로, 편견 없는 관점에서 나온 견해와 논단으로 이루어진 그의 이론과 실제뿐만 아니라, 보수적이지도 급진적이지도 않은 매우 中庸적인 사상을 꼽고 있다. 中庸을 통해 생활 자체가 예술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45) 엘리스는 人性의 한 요소로서의 性欲에

42) 「文藝上的異物」(1922.4.16.), 『自己的園地』, 30쪽.

43) 「一三三 文學與宗教」, 『知堂回想錄』, 449쪽.

44) 「周作人自述」(1930作, 1934.12.“北新”版『周作人論』), 『周作人文類編⑩ 八十心情-自敍, 懷人, 記事』, 2쪽.

www.kci.go.kr

대해 설명하면서, 종국에는 인간의 삶에서 "환락과 節制 두 가지는 병존하며, 사실 서로 상반되지 않고 서로 相生한다."라고 주장했는데, 周作人은 이러한 엘리스의 견해를 '中庸'이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이다.

周作人의 글에 엘리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1918년부터인데, 엘리스의 性 심리학을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형성과 함께 우생학적 측면에서 받아들였던 당시 사회학자나 생물학자들과 달리, 周作人은 「論左拉」, 「藹理斯『感想錄』抄」[46]와 같이 주로 문학비평과 관련된 그의 관점을 번역 소개하는데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심지어 1935년에는 上海 간행물에 발표된 "엘리스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글을 보고, 언제는 엘리스의 시대가 있었는가 반박하며 인류학과 性學을 바탕으로 하는 그의 문화 및 문예 평론의 가치를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하였다.[47] 사실 1934년에는 우생학자 潘光旦에 의해 엘리스의 『性心理 研究』 제6집 중 『性的教育』과 『性的道德』이 단행본(青年協會書局 출판)으로 번역되어 나왔었다.[48] 게다가 潘光旦은 막내 동생 周建人과 한때 우생학 논쟁을 일으켰던 인물이었다.[49] 그러나 엘리스를 다루는 周作人의 글에서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시기적으로 潘光旦이 周作人의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潘光旦의 엘리스의 수용을 독자적인 경로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50] 그 두 사람의 논의의 대상 역시 현저히 달랐던 것을 보면,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엘리스를 수용하는 層次 자체가 달랐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짐작해 본다.

1923-24년 사이 엘리스를 인용하는 글에서는, 이후 周作人의 사상적 특징을 논

45) 「關於自己」(1937.12.『宇宙風』55期), 『周作人文類編⑩ 八十心情-自敍, 懷人, 記事』, 6쪽.
46) 「論左拉」(1926.7.『駱駝』발표, 『藝術與生活』수록), 「藹理斯『感想錄』抄」(1925.2.9.『語絲』13期 발표, 『永日集』수록).
47) 「藹理斯的時代」(1935.1.20.『大公報』), 『周作人文類編⑤ 上下身-性學, 兒童, 婦女』, 169-171쪽.
48) 呂文浩, 「潘光旦對藹理士性心理學的接受, 傳播與修正」,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青年學術論壇』, 2004, 357쪽.
49) 사카모토 히로코 지음, 양일모·조경란 옮김, 『중국 민족주의의 신화』 제2장 연애 신성과 우생 사상, 지식의 풍경, 2004, 156-170쪽.
50) 呂文浩, 「潘光旦對藹理士性心理學的接受, 傳播與修正」,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青年學術論壇』, 2004, 353-359쪽.

할 때 언급되는 '中庸'의 단초가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두 달간의 시차를 두고 발표된 두 편의 글에서 공통점을 유추해 보도록 하자.

> 본래 생활의 예술은 결코 금욕에 있지 않고 탐닉에도 있지 않다. 그것은 이 둘의 상호 지탱에 있다. 취하고자 하면 거부하고, 거부하고자 하면 취하는 식으로 리듬감 있는 인생을 조성한다. 이것은 결코 일직선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탐닉은 생활의 기본이어서 멸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일종의 節制가 필요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의 용도이다. 금욕주의의 공은 오로지 이로써 더욱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음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떠나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讀紡輪的故事」)[51]

> 어떤 이가 이 두 가지(즉 금욕과 탐닉)중 하나를 생활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렇게 살아가기 이전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가 먼저 그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극단으로 밀고 간 다음, 다시 방향을 바꾸어 자기 쪽으로 돌아온다면, 비로소 그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후에 모범적인 기독교 신자로 기념될 것이다. 그러나 시종 이 두 가지를 존중한 이상자야말로 살아가는 법을 분명하게 깨달은 대사라고 할 수 있다. …… 모든 삶은 건설적이면서도 파괴적이고, 얻는 것이 있으면 대가를 치르기도 한다. 구성작용과 분해 작용이 영원히 순환하는 것이다.「聖芳濟與其他」[52]

「讀紡輪的故事」은 프랑스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까뛰에 망데스(Catulle Mendes)의 글을 읽고 난 뒤 쓴 글인데, 1924년 2월에 발표한 「藹理斯的話」보다 비록 한 해 전(1923년 12월)에 발표되었지만 두 글의 논지가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단지 금욕주의의 용도를 완전한 인생을 위한 조건으로 취급함으로써, 節制의 문제가 性에 국한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51) 本來生活之藝術幷不在禁欲也不在耽溺, 在于二者之互相支拄, 欲取復據, 欲據復取, 造成旋律的人生, 決不以一直線的進行爲貴. 耽溺是生活的基本, 不是可以蔑視的, 只是需要一種節制; 這便是禁慾主義的用處, 唯其功用在于因此而能得到更完全的滿足, 離開了這個目的他自身就別無價值. (「讀紡輪的故事」(1923.11.10.『晨報副鐫』), 『雨天的書』, 179쪽)。
52) "有人以此二者(卽禁欲與耽溺)之一爲其生活的唯一目的者, 其人將在尙未生活之前早已死了. 有人先將其一推至極端, 再轉而之他, 其人才眞能了解人生是什麽, 日後將被記念爲模範的聖徒. 但是始終尊重這二重理想者, 那才是知生活法的明智的大師……一切生活是一個建設與破壞, 一個取進與付出, 一個永遠的構成作用與分解作用的循環." 「藹理斯的話」(1924.2.23.『晨報副鐫』), 『雨天的書』, 89쪽에서 재인용.

www.kci.go.kr

난다. 그 결과 생활이 예술화되는 지점은, 취하고 버리는 것을 미묘하게 그리고 적절히 섞는 그곳에 있게 된다.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 일으키는 어떤 길항 작용의 긴장감으로 인해, 삶은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 예술화된다는 것이다. 그해 연말 발표한 「生活之藝術」에서, 周作人은 생활의 예술화라는 말을 중국 고유의 말로 표현하자면 '禮'가 된다면서, 엘리스의 용어 '節制'를 '禮'라는 자신의 말로 바꾸게 된다.

> 동물의 생활은 본래 자연적으로 조절된다. 천여 년 전 중국의 문화가 발달했을 때, 靈肉一致의 형상에 이르렀는데, 이후 금욕사상에 패하여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생활로 변하였다. 자유도 없고 節制도 없는, 모든 것이 예교의 가면 아래에서 억압과 방종을 일삼고 있으니, 사실 이른바 禮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
> 삶은 쉬운 것이 아니다. 동물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한 방법이고, 생활을 일종의 예술처럼, 신비롭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또 한 방법이다. 이 두 가지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한 가지 더 있다면 禽獸보다 못하게 마구 살아가는 것이다.53)

뒤이어 周作人은 『禮記』의 '禮'를 'Rite'가 아니라 'Art'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 辜鴻銘의 견해를 끌어와, 이것이야말로 본래 禮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삶의 節制 즉 수천 년 전의 본연의 禮를 통해 중국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지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다소 논란과 혼란을 야기하는 節制(혹은 禮)라는 말을, 周作人은 서양의 기독교적 禁欲 또는 宋代 이후 道學家들의 禁欲과 구분해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그에게 금욕은 억압 아니면 방종이라는 양 극단을 낳을 뿐, 삶에서 길항 작용을 하는 본래의 조절 능력은 없는 그런 것이었다.

엘리스는 세상에 프로이드(G. Freud)를 알린 인물로도 알려져 있지만, 프로이드가 임상적 문제 자체에 관심이 많았던 반면, 엘리스는 병리적인 것과 정상적인 것

53) 動物的生活本有自然的調節, 中國在千年以前文化發達, 一時有臻于靈肉一致之象, 後來爲禁欲思想所戰勝, 變成現在這樣的生活, 無自由, 無節制, 一切在藝教的面具底下實行迫壓與放恣, 實在所謂藝者早已消滅無存了. 生活不是很容易的事. 動物那樣的, 自然地簡易地生活, 是其一法; 把生活當作一種藝術, 微妙地美地生活, 又是一法: 二者之外別無道路, 有之則是禽獸之下的亂調的生活了. 「生活之藝術」(1924.11.『語絲』1期), 『雨天的書』, 92-93쪽.

의 구분에는 흥미가 별로 없었고, 오히려 性을 바라보는 인간의 심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그는 대다수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실제로는 어떤 한 가지 양상이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지역에 퍼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정상과 비정상 사이에 분명한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의 저서에 깔려있는 확신은, 심리적인 요인이 性 행동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性 관계란 인간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54) 엘리스의 『性심리 연구』는, 많은 사람들의 性에 대한 태도를 특징짓는 두려움과 무지를 근절하고, 만족스러운 性 경험을 통해 사랑의 표현을 더욱 충실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인 것이다. 그래서 그는, 생활의 예술이란 버리고 취하는 것의 미묘한 절제 사이에 있다고 한 것이다. 周作人은 이러한 性 담론의 수용을 통해, 인류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자신의 언행을, 군중의 엄중한 감독이라는 사회적인 제약에 의해 간섭받지 않고, 자기 집 앞의 눈은 치우되 다른 집 지붕의 서리를 간섭하지 않듯이, 각자가 스스로의 자유로운 언행을 책임지는55) 개인마다 내적 의지를 가진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周作人의 「生活之藝術」은 『中庸』의 서두를 그의 논리로 재해석하면서 마무리가 된다. "하늘이 하늘의 본성을 만물에게 부여해준 것을 본성이라 한다. 그 본성을 잘 파악하고 발달시키는 것을 일컬어 인간의 길이라고 한다. 그 길을 닦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이다.(天命之爲性, 率性之爲道, 修道之爲教)" 이러한 그의 節制, 中庸은 여성과 아동의 문학교육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교육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개성을 발전시켜 독립적인 판단력을 기르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중국의 상황에서 독서는 多讀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의 연애를 소재로 한 책은 나쁜 책이라 금지하는 현재 중국의 지식계급을 보더라도 이런 판단력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성(理知)이란 감정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이므로, 문예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성

54) 구자현·황상익, 「엘리스(Havelock Ellis)의 성심리학 연구」, 『醫史學』제5권 제1호(통권 제8호), 1996, 28쪽.

55) 「一封反對新文化的信」(1924.5.16.『晨報副鐫』), 『周作人文類編⑤ 上下身 - 性學, 兒童, 婦女』, 462쪽.

www.kci.go.kr

의 수양 역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56] 엘리스로부터 받은 영향이, 理性과 感性을 선후 관계나 종속 관계 또는 우선 관계가 아닌 함께 동행 하는 관계라고 인식할 정도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동은 성장하여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들을 일개 충실한 국민으로만 보고 교육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학교에서 그리고 아동 문학서에서 정치적인 편견을 주입하는 내용을 담는 것에 반대했다. 정치적인 판단은 아동이 자라서 독립적인 개인이 되면 각자가 알아서 내리면 그만인 것이었다. 그보다는 理知와 상상을 함께 잘 꿰어낸 문장을 통해, 아이들에게 지식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아동의 생동하는 활력을 계발시키는 것이 더 근본적인 아동교육이라고 주장했다.[57] 이와 같은 '中庸'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그가 인간의 욕구에 탐닉함을 비판하고 정신적 理性의 발전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바탕을 현실에서 충실히 실현하지 못한 채 성급히 결합시킴으로써, 중국의 전통적인 지식인들이 자주 빠지는 無缺한 全面論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58] 그럼에도 불구하고, 周作人이 수용하고자 한 엘리스의 節制의 함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볼 여지는 남아있다. 그들(周作人과 엘리스)이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대치하고 있는 양극(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 라고 하기보다, 결합하는 상태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였고, 상호 반대되는 힘이 서로 팽팽하게 작용하는 그 순간에 인간의 삶은 삶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단순한 균형이 아니라 삶을 활기차고 아름답게 할 수 있게 하는 상호 반대되는 힘들을 팽팽하게 결합시키는 균형이었다.

6. 마치며

56) 「女子的讀書」(1924.1.16.『民國日報』), 『周作人文類編⑤上下身-性學, 兒童, 婦女』, 323-325쪽.
57) 「關於兒童的書」(1923.8.17.『晨報副鐫』), 『周作人文類編⑤上下身-性學, 兒童, 婦女』, 712-715쪽.
58) 錢理群, 『周作人研究二十一講』, 中華書局, 2004, 37쪽.

周作人이 적극적으로 여성문제에 관여하게 된 것은, 단지 여성을 옹호하고 남성을 가해자로 비판하며, 봉건적 미신적 예교를 타파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흔히들 중국은 서양과 달리 현실의 삶에 대한 관심이 철학의 바탕을 이룬다고 하는데, 周作人에 의하면, 禮라는 것도 결국 이러한 풍토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래의 禮는 인간의 생활이 풍요롭도록 양 극단을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는 動的인 생활의 조절제였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전도되어 오히려 사람을 구속하고 지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현실세계에는 윤리규범만 남게 되고 그 근본인 인간은 점차 희미하게 된 것이다. 명령과 순종의 관계를 낳는 도덕규범은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의 자유롭고 발전적인 소통을 단절시키게 만든다. 그래서 그는 性 심리나 생물적 인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여성의 지위를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누구의 부속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을 가진 자로 되돌리고, 문학교육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사상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것이다.[59]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이해는, 靈肉의 인간을 복원시키고, 낡은 예법의 시각에서 벗어나 肉의 현실을 수용한 채, 性情의 도야와 감흥의 조절이라는 스스로의 내적 의지를 계발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60] 기존의 도덕을 부정한 周作人에게, 인간의 내적 자율적 의지는 새로운 문명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문학은 이러한 인간의 삶을 정당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周作人이 생각한 문학의 공간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생각이 남에게 서로 읽혀지는 그런 공간이었다. 그가 생각하

59) 「女子與文學」(1922.6.3.『晨報副刊』), 『周作人文類編⑤上下身-性學, 兒童, 婦女』, 312-313쪽.
60) 영국의 시인 블레이크가 도덕 폐기론자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남여의 성적 묘사를 과감하게 시도한 이유는, 인간들이 자신의 인간성 안에 神性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보다 나은 추상적인 신을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세상을 타락시켰다고 파악한 데 있다고 한다.(안영수, 「영국 델라 크루스칸 문학 세계(The Literal World of the English Della Cruscans)와 블레이크의 性的 묘사」, 경희대 인문학 연구소『인문학연구』제8호, 2004, 216-220쪽) 반면, 周作人은 에너지의 발산과 이성적인 조절력이 모두 인간의 본성적 과정에 있는 것을 가리켜 自然人性이라고 보았다.(錢理群, 『周作人研究二十一講』, 中華書局, 2004, 34頁)。

www.kci.go.kr

는 '표현한다'는 것의 의미는, 듣는 이에게 자신과 같은 情感이 발생하도록 하여 無形 중에 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61] 周作人은 평생에 걸쳐 문학을 소통의 공간으로 생각했다. 5·4운동의 정체기를 겪고 요양 생활을 하면서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문예를 애호하는 사람으로, 문예를 통해 다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싶다. 문예를 통해 자신의 심정을 찾고 이해되는 유쾌함을 얻고 싶다. 이러한 점에서 만약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항상 감사할 것이다. 나 자신은 안다. 나의 글들이 졸렬하고 서툴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평소에 벗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지금도 상상의 벗을 찾아 그들에게 나의 무료한 한담을 들어주기를 부탁하고 싶다."[62] 주작인의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관점은 단순한 지식 습득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중국 사회의 문제를 단절에 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학이라는 공간을 생각하게 한 출발점이었다.

〈參考文獻〉

鍾叔河 編,『周作人文類編③ 本色-文學, 文章, 文化』, 湖南文藝出版社, 1998.
「人的文學」,「平民的文學」,「新文學的要求」,「文藝的討論」,「宗教與文學」,「什麽是不道德的文學」

_____ ,『周作人文類編⑤ 上下身-性學, 兒童, 婦女』, 湖南文藝出版社, 1998.
「論不宜以花字爲女子之代名詞」, 「防淫奇策」, 「婦學商兌」, 「貞操論」, 「關于誰是犧牲的問題」, 「離婚與結婚」, 「卑劣的男子」, 「一封反對新文化的信」,「女子與文學」,「婦女問題與東方文明等」,「答藍志先書」,「女子與讀書」,「關于兒童的書」

_____ ,『周作人文類編⑩ 八十心情-自敍, 懷人, 記事』, 湖南文藝出版社, 1998.
「周作人自述」,「關于自己」

止庵 校訂,『談龍集』(周作人自編文集), 河北教育出版社, 2002.
「愛的成年」,「自己的園地舊序」

61)「宗教與文學」(1921.5.『少年中國』2卷11期),『周作人文類編③本色-文學, 文章, 文化』, 57쪽.
62)「自己的園地舊序」,『談龍集』, 33쪽.

_____ ,『自己的園地』, (周作人自編文集), 河北教育出版社, 2002.
「情詩」,「沈淪」,「猥褻論」,「文藝與道德」,「鏡花緣」,「文藝的異物」

_____ ,『知堂回想錄』, (周作人自編文集), 河北教育出版社, 2002.
「一三三 文學與宗教」

_____ ,『雨天的書』, (周作人自編文集), 河北教育出版社, 2002.
「讀紡輪的故事」,「藹理斯的話」,「生活之藝術」

錢理群,『周作人研究二十一講』, 中華書局, 2004.

舒蕪,『周作人的是非功過』, 遼寧教育出版社, 2000.

劉全福,『翻譯家周作人』,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7.

張國香·張鐵榮 編著,『周作人年譜(1885-1967)』, 天津人民出版社, 2000.

小川利康,〈五四時期の周作人の文學觀〉,『日本中國學會報』第42집, 1990, 227-241쪽.

小川利康,〈周作人とH·エリス〉,『早大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別冊15集, 1989, 131-144쪽.

吳紅華,〈周作人のエロティズム〉,『中國文學論集』第28號, 1999, 136-150頁.

張競 지음, 임수빈 옮김,『근대 중국과 연애의 발견』, 소나무, 2007.

사카모토 히로코(坂元ひろ子) 지음, 양일모·조경란 옮김,『중국 민족주의의 신화 - 인종·신체·젠더로 본 중국의 근대』, 지식의 풍경, 2004.

呂文浩,〈潘光旦對藹理士性心理學的接受, 傳播與修正〉,『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青年學術論壇』, 2004, 352-37쪽..

구자현·황상익,「엘리스(Havelock Ellis)의 성심리학 연구」,『醫史學』제5권 제1호(통권 제8호), 1996, 21-31쪽.

안영수,「영국 델라 크루스칸 문학 세계(The Literal World of the English Della Cruscans)와 블레이크의 性的 묘사」, 경희대 인문학 연구소『인문학연구』제8호, 2004, 191-224쪽.

한국 브리태니커 회사,『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권13, 16, 21, 1993.

〈中文提要〉

周作人的婦女觀, 自然人性觀和文學觀都是與英國性心理學者藹理斯的思想有關. 周作人根據他的性心理學, 回復女性的地位, 爲了跟男性同等地互相交流, 主張教育女性, 造成各個人類坦白地表現自己的思感, 誠實地了解他人的思感的社會. 周作人覺得封建道德危害了男女兩方的自然人性, 靈肉的自然人性是很當然的人的本性, 所以不要迫壓反而承認, 讓情欲發瀉形

www.kci.go.kr

成文學的世界. 但文學世界的性格是跟現實社會不一樣, 連庸俗的話也可以自由表現. 這樣的世界讓人類的生活很豐富很美地活着, 這就是生活之藝術. 生活之藝術是從在于微妙地混和取與舍二者出來的, 中國古來的中庸就是. 周作人覺得人和人之間最重要是談話, 所以他希望在自由的無限的文學世界里, 可以建設一個理想的公共社會.

關鍵詞 : 性心理學、女性、靈肉一致、文學世界、節制、禮、中庸

www.kci.go.kr